

범여 대통합 성사 내주초 판가름

민주 대통합과 등 “성과 없으면 탈당” 지도부 압박

김한길 “민주 기득권 버리고 대통합 창당 참여를”

범여권 대통합이 막판 급류를 타고 있다. 당장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범여권 대통합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다음주 내에 대통합이 가시화되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대통합 신당을 창당해야 추석을 전후해 국민경선을 치르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범여권의 제정과는 대통합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과 이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12일 최고위원회의의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기득권과 주도권을 내세우지 말고 제3세력 대통합 창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혀 범여권 대통합에 탄력을 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어 “통합을 위해 우선 저부터 기득권을 버리겠다”며 “대통

합은 시대정신이고 대선승리는 우리의 직무”라고도 말해 기존의 통합민주당 중심의 대통합론에서 한 발 물러섰다.

김 대표의 구상은 우리당을 제외하고 우리당 탈당그룹, 미래창조연대, 선진평화연대, 통합민주당이 공동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결합하자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4자 회동’을 거부하며 버리는 모습을 보이자 정대철 전 고문 그룹 등 여당 탈당파 의원들과의 ‘제3지대 신당 창당론’이라는 ‘우회 전략’을 통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대통합과를 아우르고 박상천 공동대표를 압박하는 양수결장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통합민주당의 움직임에 제3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탈당 의원들의 결사체인 대통합 추진 모임은 물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합 추진 모임 내부에서는 친노-비노 진영에 따라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개는 제3지대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범여 대통합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 장상 전 대표(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와 김영진 전 의원(· 두번째)이 회견장에 미리 와있는 신중수 통합민주당 의원(· 첫번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혁규 “李측 초본 발급 사주한 적 없다”

“F1 유치 국가위상 제고큰 힘 9월 국회서 특별법 통과 확신”

범여권 대선 예비후보인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12일 최근 일부 언론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친인척 주민등록초본 입수 보도와 관련, “한 제보자가 (이 전 시장) 초본 사본을 갖고 왔으나 이를 사주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보자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 짧은 기간에 많은 전입이 있어서 위장전입 의혹을 갖게 돼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 국민적 의혹이 많은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자료를) 누가 언제, 어떻게 발급받았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후보와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전 시장은 60~70년대 개발시대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1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직능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의 CEO이고 저는 글로벌시대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에서 경쟁해온 CEO, 이 전 시장은 관료사장이었고

저는 오너사장이었던 점이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통합 논의와 관련, “통합 방식은 ‘당 대 당’이나 ‘해체모여식’ 등 어느 것이든 상관없지만 모두 기득권을 버리고 상식적 기준과 원칙하에서 대통합을 해야 한다”며 “한쪽은 해체하고 다른 쪽은 당을 유지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의 F1(포틀러원 자동차대회) 유치 노력과 관련, “창원에서 F3를 3년간 치러본 경험을 종합하면 F1 유치는 자동차산업 발전과 국가 위상 제고에 큰 힘이 된다. 일부에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도민이 의견을 모아서 유치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는 ‘F1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한 김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광주·전남 직능단체협의회 초청강연을 하고 13일 오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광주 발대식에 참석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는 영남지역당·잡탕 정당”

강연 위해 광주 온 유시민 강력 비난

대권 도전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한나라당을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무책임한 보수 정당” “철통 같은 영남지역당” “잡탕 정당”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전남대 근현대사 연구회 초청 강연에 앞서 배포한 강연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은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배를 바탕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일

에만 눈이 멀고 정치발전과 국가 발전은 안중에 없다”며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면 정책과 노선이야 어떻든 무조건 한나라당에 들어가야 하며 그래서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 아니라 잡탕정당이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에 대항하는 세력도 살아남으려면 특정지역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든가, 노선과 정책의 차이를 불문하고 무조

건 하나로 뭉쳐야 살기 때문에 잡탕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을 예외로 한다면 모든 정당들이 정책과 노선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뒤섞인 잡탕정당”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유권자에게도 “정치를 욕하기만 하면서 정당에 참여하지도 않고 정치인을 후원하지도 않고 선거일에는 투표하지도 않는 주권자에게는 나쁜 정치를 욕할 권리가 없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준”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 “시간 없다 빨리 뭉쳐라”

“국민은 대통합 통해 한나라와 일대일 구도 원해”

천정배 의원 예방 자리서 밝혀

김대중 전 대통령은 12일 “지금 시간이 없다.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고 실천에 나설 때로 사명감을 갖고 빨리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출마 인사차 예방한 천정배 의원을 만나 “국민이 범여권에 바라는 것은 대통합을 통해 한나라당과 일대일로 경쟁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만 국민에게 잃은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천 의원이 주도하는 민생정치모임 소속 정성호 의원이 전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당 해체’ 문제 등을 놓고 교착상태에서 빠진 범여권의 통합을 재차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은 “정치의 대도는 대통합의 길이다. 국민들은 이대로 가면 선거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일대일 구도로 가면 ‘시소게임’이 될 것”이라며 대통합의 절박성을 거듭 주장했다고 한다.

이처럼 천 의원을 비롯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범여권 주자들이 잇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 ‘출

마신고’를 하고 범여권 대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9일 김 전 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동교동을 방문했다.

통합민주당 이인제 의원의 지난 5일 출마선언 이후 김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범여 주자들의 동교동 방문이 줄을 잇는 것은 무엇보다 민주개혁진영 ‘적자 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DJ 대통합 발언 지나친 정치개입”

조순형 의원

통합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2일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지도자 다음 총선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서는 해서는 안될 지나친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직 대통령은 어느 쪽에 치우치는 당파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발언이 돼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만복 국정원장 “李 X-파일 없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12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X-파일’ 존재 여부에 대해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X-파일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의원

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김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X-파일 존재 여부는 물론 그와 유사한 것이라도 있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갖고 있는 게 없다’는 확인서

까지 받았다. X-파일은 없다”고 보고했다.

김 원장은 이재오 최고위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지난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 (조사팀을 구성해) 이 전 시장 X-파일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조사팀 존재 여부는 알지 못한다”면서 “이 주장에 대해 지난 9월부터 감사실장 주재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암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부터 빠른 직책기입니다
“전 과목”

2008년부터 모집예정 변경예함

직원채용 (정규직)

- 2년제이상 졸업자
- 남,녀(30세미만)
- 이력서자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 062)511-6359
H.P. 017-631-4467
서울지원 TEL. 02)3684-5263

여름大특강 개강

★카빙(carving) 과일조각장식-스낵(초밥) 수강생 모집★
주3회 오전 10시/오후 4시

맛과 멋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한국조식사(반찬)가정교실
- 한국조식(사면)가정교실
- 일본조식(사면)가정교실
- 한국조식(반찬)가정교실
- 한국조식(반찬)가정교실
- 카빙과일조각장식반 (4주교실)

- 월~토 비혼수업 11시~1시
- 월~토 혼인수업 1시~2시
- 월~토 점심수업 7시
- 월~토 점심수업 2시
- 월~토 점심수업 7시
- 월~토 점심수업 7시
- 월~토 저녁조각장식반 10시~12시
- 토, 일 아침수업 7시
- 월~토요일 / 22회 Free time

*이수료증 발급 *수업료 10만원 *재료비 별도 *이수료증 발급 *수업료 10만원 *재료비 별도

*이수료증 발급 *수업료 10만원 *재료비 별도

에스더원 요리학원 (062)385-0723, 384-1984

*이수료증 발급 *수업료 10만원 *재료비 별도